

의료사회 속에서

한 윤 복

<가톨릭의대 간호학과 교학감>



주어진 제목의 “의료사회”를 의료사회 전반에 걸쳐 생각하기에는 그 치지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협의의 “의료사회” 즉 재래의 “병원사회”로 필자 나름대로 좁히고, “변화”의 방향을 인간기계화의 갈등 속에서 본래의 간호역할을 充實하게 수행하여 大衆에게 우리의 專門性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위치를 確保하는 길이라는 것을 前提하려고 한다.

참된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보건 의료계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國民保健이 사회발전의 기본 요소이며 국민의 건강상태 향상은 사회 경제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제 4차 5개년 계획의 경제발전의 노력을 통하여 다져진 기반위에 모든 국민이 적절한 의료를 받게 될 때 앞으로의 간호원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어 비

교할 수 없이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이와같은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看護受要者의 健康要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풍부한 知識과 技術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看護員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健康危機(Health Crisis)에 처해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 병원의 중요한 역할을 외면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 가치있는 經驗을 토대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더 良質로 發展시킬 수 있다고 본다.

어떠한 制度下에서 국민보건을 管理하던 문제는 우리의 價値意識이다. 선진 복지국가의 보건 사업이 現在와 같이 알뜰한 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 속 깊이 뿌리 박고있는 人間尊重의 基本思想이다. 승용차가 생기기 以前에는 말(馬)이나 마차를 타고 산간벽지 주민의 건강을 틀본 記錄이 있다. 그 노련한 看護員들은 一次診療라는 제도나 명칭없이도 지식과 경험, 예리한 관찰력, 책임감 그리고 능숙한 대인관계로서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지도하였고 질병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에 至大한 공을 세웠다. 최근 一次診療를 시범하면서 論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변화에 민감해야 할 것으로 항상 생각은 해 왔

◆간호원은 변화의 길잡이이다

었다. 專門職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다져 놓았었다면 一部 의료인들 처럼 무조건 반대할 이유도 없고 役割 委任者인 우리도 너무 흥분할 것이 없지 않는가? 변화에 適應하는 우리의 준비가 문제라고 본다.

후르텐스·나이팅게일은 이미 “人間看護”의 重要性을 역설하였다.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간호한다고 하였다. 그의 著書 中에서 Notes on Hospital을 보면 그 당시 병원의 의양이나 형식에 치중하던 생각을 一掃시키고 內部的 위생시설과 의사와 간호원의 質과 便利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새로운 傾向을 보여 주었고, Notes on Nursing에는 오늘날 환경위생과 개인위생, 정신건강의 중요성 및 현대 간호원의 역할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看護의 일체(一切)는 간호원의 손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 기준미달의 병원이 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할 줄 안다. 변화의 길잡이가 될 간호원은 현 것에 대한 개념과 평가가 바로 되어야 한다. 變化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과거를 바로 알고 評價하므로써 現在の 위치를 定立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미래를 정확하게 내어다 볼 수 있다. 歷史를 바로 인식하므로써 사회적 변화에 민감할 수 있고 새 시대에 알맞은 간호로 轉向할 수도 있는 것이다. “看護의 質은 看護하는 사람의 質에 달렸다”라고 한 말을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어떠한가?

병원, 의사, 간호원을 믿고 안심하고 내 가족 내 친지를 입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요즘 같은 不信社會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보호자가 常住하지 않고 믿고 안심하고 患者를 두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변화하지 않는한 우리의 역할이 다른 의료인에게나 일반 대중에게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看護員의 독자적인 업무를 외면하면서 發展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몇해 전 모 대학원생과 研究課題를 놓고 토론 중 그녀가 말하기를 옛날 看護員은 질병중심의 身體的 看護에 머물렀지만 現代의 看護員은 차원 높은 사회심리적 간호를 하기 때문에 身體的 간호는 補助員에게 일임하는 것이 더 진보적이며, 그러한 것을 장시간 배우고 또 실습하는 일은 無價値한 일이라고 주장 하였었다.

우리들의 價値觀의 혼란 속에서 과연 좋은 看護가 무엇인지 방향타를 잃어버린듯 하였다. 어찌되었던 질병중심의 신체적 간호를 한 과거 간호원의 “불친절”을 제목으로 매서특필 보도된 일이 있었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어찌던 대중의 기대도 낮았고 간호수요자들이 덜 覺醒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병실은 좁고, 더럽고, 연탄을 피워야하고, 불결하고, 어둡고, 소란하고, 상처는 아프고 등은 배기고…….

숨쉬고 배설하는 생물체로서의 기본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 정신적 간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작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종합 병원이 37개소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기준에 있어 千差萬別이다. 물론 동양 유일의 의료기구와 시설, 의료 기술진 그리고 看護人力을 갖춘 병원도 많다. 그러므로 일정한 水準으로 끌어 올리는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도 變化의 길잡이가 되기 위한 課題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필자는 간호사업의 最高水準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實現 可能性이 稀薄하기 때문이다.

看護員은 의료사회의 원만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변화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인간관계라는 용어는 마치 하나의 유행어와 같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사회 각 방면에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다. 전통 사회에 부합되는 윤리관과 현대 사회의 이질(異

質) 혼합적인 가치관의 차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蹶失一略에 있는 인간의 정서적 만족의 회복과 인간 행동의 이해와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해가 필요하다. 병원사회에 있어 종적, 횡적 인간관계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병원사회 계층간의 不調和, 不安定에서 기인되는 사회적 압력에 관해서도 다각도로 연구할 여지가 있다.

지난날 수년간 북구라파에서 파견된 노련한 간호원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다. 상호간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샌드위치와 같은 입장에서 한국적 思考方式으로 서구적 행동을 하거나 서구적 思考方式으로 한국식 행동을 本意 아니게 강요당하는 일도 흔히 있었다.

後進性을 脫皮하려고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하여 현대 간호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 그들과 거의 대등하다고 自負하였으나 병원사회 계층내에서의 원만하고 自然스러운 인간관계와 인간존중의 思想은 다 배우지 못했다.

그들에게도 言語의 장벽은 적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患者를 알기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아파요?” 등 몇마디의 한국어와 천성의 표정, 그리고 몸짓을 구사하여 우리보다 더 빨리 정확하게 看護問題를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친화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감탄 하였다.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직업 윤리상의 問題는 成人으로서의 人格과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 했으며 직업윤리와 같은 정의적 영역의 교육 목표 달성도를 필답고사로서 측정하려는 것은 매우 무의미한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자격 간호원이 되면서 이미 인간관계적 경험의 내면화 과정을 모두 밟아서 가치화되고 생활화 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관계 없는 간호행위를 생각할 수

없고 인간 소외의 간호는 存在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술사이란 단위로서의 사람 즉 그 이하로 더 잘게 쪼갤 수 없는 마지막 작은 단위로서의 사람은 인간적 관계가 충만할 때에 비로소 지적, 사회적 성숙이 쉽게 이루어진다. 간호원과 간호수요자간의 인간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병원사회에서의 전근대적 인간관계의 잔재를 일소하고 명량한 인간관계를 건설한다는 것이 간호의 현대화를 촉진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된다.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가 존경심을 가지고 대할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가고 있다.

질병은 인간의 속성이라 할 수 있고 환자는 비생산적 존재일 뿐더러 소모이며 사회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질병관은 환자 별지에서 환자우대로 변하고 개인적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고 사회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는 환자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전인간호의 사상이 나오게 된 것이다. 환자를 인간으로 존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호원 자신이 확고한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건강회복을 위한 간호원의 인간적 직업적 자각이야말로 전인간호의 기본이 된다. 자기 자신의 인식을 바로 하므로써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며 자기 안정이 있으면 환자의 감정의 동요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간호원 자신의 인간회복이 전인간호에 선행해서 환자의 세계를 알고 그 세계에 들어가 환자의 눈으로 그 세계를 보고 환자와 더불어 자유회복의 길을 찾는 일에 변화의 걸잡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바이다.